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6.9.17.(목)	
담당부서	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	책임자	국 장 박상만	(02-3145-8170)
		담당자	팀 장 김은성	(02-3145-8180)

금감원,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

- 금융감독원은 9.17일(목) 이찬진 원장 주재로 ‘금융상황 점검회의’를 개최하여 美 FOMC의 기준금리 25bp 인상*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 및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음

* '23.7월 이후 3년 2개월만의 인상(↑ 25bp, 3.75~4.00%)

- 이찬진 원장은 최근 중동지역 불안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,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,

- 美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리·자금흐름 및 환율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,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등에 대한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 변동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였음

- 이에 따라, 금리·주가·환율 등 주요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·가계 금융부담, 금융회사 건전성 등 부문별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음

- ① 최근 거래시간 연장*에 따른 거래량 분산 등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,

* '26.9.14일부터 한국거래소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'애프터마켓' 운영

- 美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, AI 투자 둔화 가능성 등으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쏠림, 신용거래 추이 등을 지속 점검

② 최근 하향 안정화되던 원/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여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

- 또한, 日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은 만큼 향후 엔화 강세 및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 변화 가능성에도 대비

③ 국내 회사채·단기자금시장 등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

- 특히, 자금조달 애로 심화가 예상되는 中·低신용등급 및 비수도권 기업으로 생산적 금융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

④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별 영향을 점검하고,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*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

* 새희망홀씨·중금리대출 공급 확대, 中·低신용자 등 취약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등

⑤ 시중 유동성 축소시 발생 가능한 증권사, 여전사 등의 차환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, 보험사 자산-부채관리(ALM) 강화를 통해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

□ 마지막으로, 이찬진 원장은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, 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관련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·유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,

○ 이상징후 발생시,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음